

돼지가 되고 나서야.....



김 인 호
(송원축산 이사)

사람이 돼지가 된다고 해서야 말이되는나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돼지”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말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만 돼지사양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 심하게 말하자면, 「돼지우리」안에서 사람이 의·식·주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양돈한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돼지우리(돈사)내에서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나열하자면,

첫째, 집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점이다.

집안이 깨끗하다 함은 돈방의 청결 및 돈방내 깔짚이 항상 깨끗해야 똥을 뜻하며, 복도나 돼지우리 주위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둘째, 돈사내 온도는 사람이 옷만입은 상태로 잠을 자더라도 탈없는 상태라야 된다는 점이다.

아가 태어나면 목욕시킨후 정성스레 접어 놓았던 배내 옷을 입힌다. 그 후에도 혼자서 거동할 때까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관리에 온갖 정성을 쏟는다. 그리 정성을 다해도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배탈이 나기 일쑤이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탈이 나는데, 주인의식이 없는 일상관리로 양돈한다 해서야...돈사내 온도는 성장기별로 다르겠지만 20℃내외에서 관리되어 주면 무난하다.

셋째, 청정한 실내공기를 들 수 있다.

가스로 오염되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거나 공기가 혼탁해 숨 쉬기가 거부할 정도로 된 상태에서는 약품을

쏟아 넣어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돈사내 공기는 한마디로 맨 끝 벽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청정감이 들어야 되며,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맑은 상태여야 된다. 뽀얀 실내 공기 상태라면 가스나 기타 불쾌한 냄새가 가세된 먼지(사료분진· 깔짚부스러기· 돈분진)들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보온쪽으로 치우쳐 관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환기와 보온은 쌍둥이가 될 수 없는 천적이지만 그래도 하모니를 잘 이루게 하여 “사람=돼지” 생활하는데 불편없도록 해 주어야 된다. 환기량 조절은 창문갯수를 계절에 맞추어 여닫도록 하여야 하며(환풍기 작동시간 포함, 자동감지기에 의한 첨단사육시설 제외)이 모두는 사람 숨 쉬기에 알맞은 상태와 옷만 입은 상태로 이불없이 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여건에 맞추어 조절되어야 한다.

네째, 식생활관리도 사람처럼...

돼지의 음식(물과 사료)은 사람이 먹어서 탈이 없어야 된다. 최근 양돈사료를 먹어보는 사람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한다. 이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돼지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뜻일게다. 이처럼 돈공들이 섭식하는 사료의 품질관리를 몸으로 하면서 사양관리를 해주는 상태라면 틀림없이 양돈업을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돼지의 음식은 사람이 먹더라도 탈없이 될 정도로 신선해야 된다. 새로운 사료가 들어올 때마다 한 입씩 깨물어 가며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돼지와 생사(生死)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없이는 실천하기가 곤란하다. 만일 이를 뛰어넘어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돼지와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만으로도 양돈업을 성공리에 이끌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섯째, “돼지는 인간이다”라는 마음으로

“돼지=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굳어질 때가 있다면 이는 잘못된 돼지의 습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난 후의 일일 것이다. 돼지는 몸짓과 시선 그리고 꿀소리 등의 언어를 가진 갓난아이와 같다. 이러한 돈공들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라면 돼지가 되어보지 않고는 불가능하지만, 갓난아이와 의사소통하는 어버이 마음가짐이라면 몸짓 하나, 울음소리 하나만으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양돈사양관리는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진난만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무심히 건너가려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한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바로 이러한 천진난만한 아이의 무모한 행동을 보살피는 마음가짐이 양돈 사양관리의 기본이 된다. 최선의 사양관리란 천진난만한 아이가 마음놓고 뛰놀며 건강하게 자라게끔 하는데 있다.

돼지가 되어 본다 함은 돼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며, 돼지를 인간으로 승격시켜 주는 인간다운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면 양돈할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셈이 된다.

여섯째, 사랑방되어야...

인간의 애정이 가득 담긴 훈훈한 사랑방 분위기라야 뱃속에서 자라는 새끼돼지들이 크고 건강하게 출산된다.

사랑방 분위기란 관리자들이 애정어린 몸짓에서 우러나게 된다. 교배장소의 청결과 깔짚배려,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경사도 등이 사전에 배려되어 준다면 사랑방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돈공들이 좋아하는 은은한 음악이 실내 공간을 메우고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최적여건으로 들추어질 수 있으나, 아뭏든 모든 지적사항들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모아져야 된다. 사람의 의·식·주 해결, 그 이상의 정성없이는 양돈 사양관리는 부적합한 상태를 반복하게 된다. 왜냐하면 의사소통기구가 인간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철없는 갓난아이의 의식주 해결방법을 모색해야만 되며, 이러한 정성은 돼지를 인간으로 승격시켜 주지 않으면 실권력이 떨어진 다. 결국 돼지가 되고 나서야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이 돼지되는게 아니고 돼지를 사람되게 해보자. ● 養勝